“백의종군 자세로 돌아오면 대환영”

■ KIA 팬들 ‘김진우 복귀’ 반응

“(김)진우야, 환영한다. 단,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렴.”

‘KIA토종 에이스’ 김진우(24·캐리커처)의 복귀소식〈본보 11월 22일 22면〉이 알려지면서 구단 홈페이지(www.tigers.co.kr) 게시판엔 환영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다만 환영의 뜻을 밝힌 팬들은 복귀 전제조건으로 ‘백의종군’의 정신자세를 갖출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또 일부 팬들은 팀워크를 해친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윤덕(아이디 mutulee)씨는 22일 구단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간인 ‘호사방’에 올린 글에서 “김진우에게 운동선수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느냐고 묻고 싶다”면서 “모든것을 잊고 삶을 정면으로 맞서는 정신자세로 마운드에 다시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미(아이디 tkdal23)는 “이 소식이 정말 이라면 하루빨리 그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한나(아이디 hnpooh)씨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들을 마운드에서 마음껏 날려버렸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팬들은 퇴출 또는 타 팀과의 트레이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성(아이디 js100918)씨는 “팀 분위기를 수시로 망치고, 기분에 따라 팀을 무단이탈하는 그가 이번엔 무슨 기분으로 복귀를 한다는건 지 알 수 없다”며 “한해 농사를 망쳐 팀 분위기마저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의 복귀는 불안요소가 많은 KIA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용우(아이디 cyw59)씨도 “개인사정이야 어찌됐든 김진우는 팀워크를 해친 만큼 타 구단으로 트레이드 돼야 한다”면서 “다만 김진우의 미래를 위해 삼성 등 투수 출신 감독이 있는 구단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같은 최씨의 주장에 20건이 넘는 댓글이 올라왔는 데 “잠재력을 갖춘 김진우를 보내서는 안 된다. 타 팀의 전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편 KIA팬들은 이날 하루에만 ‘호사방’에 오른 김진우의 복귀 관련 글에 댓글만 수백여건, 클릭수는 1만여건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23일 (금)

▲2007 배구월드컵 남자부 2라운드〈대한민국 : 튀니지〉(12 : 30·KBS N S-PORTS)

▲2007 오메가 미션힐스 월드컵 2R(12 : 30·SBS골프)

▲2007 한국여자 프로골프대회 ADT CAPS 챔피언십 1R(13 : 00·Xports)

▲2007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남자골프 최종R(13 : 50·MBC)

▲대통령배 씨름와 선발대회 단체전(14 : 00·MBC ESPN)

▲07/08 여자프로농구〈금호생명 : KB국민은행〉(16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동부 : 삼성〉(18 : 50·SBS스포츠) 〈LG : SK〉(18 : 50·X-ports)

24일(토)

▲2007 ISU 피겨그랑프리 김연아 출전(00 : 20·SBS)

NBA 골밑 다툼 22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NBA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뉴올리언스의 경기에서 인디애나 센터 제프 포스터(위)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문호 득점력 높여라”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아시아예선전을 준비 중인 대표팀이 스몰볼을 앞세워 최근 국제대회에서 부진했던 득점력을 높일 수 있을지 관건으로 떠올랐다.

생소한 투수와 맞서는 국제 경기에서 많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나 현 대표팀은 마운드가 기대보다 약하다는 지적속에 대만과 일본전에 나설 확실한 선발투수를 결정하지 못해 타선의 응집력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올림픽 예선 불안한 마운드, 타선 집중력으로 보완해야

따뜻한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훈 중인 대표팀은 21일까지 상비군과 여덟 차례 평가전을 치렀고 총 57점을 뽑았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7점이고 평균 안타는 10개 수준이다.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낯익은 상비군 및 대표팀 투수를 상대로 얻은 성적이고 긴장감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데이터라 크게 신뢰하기 어렵지만 투타 동반 부진보다는 나은 소식이다.

김경문 감독은 기동력과 집중타를 앞세운 스몰볼을 내세웠고 일본도 이와 비슷한 세밀한 야구로 맞설 예정이어서 도루와 안타, 작전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프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한국은 대만과 9승8패로 근소하게 앞섰다.

지난해 아시아 4개국 프로야구 챔프 결정전인 아시아시리즈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잇달아 패배했으나 올해 아시아시리즈와 야구 월드컵에서 연달아 승전고를 울려 다시 앞서가게 됐다.

대만과는 1~2점차 승부가 많았다. 4년 전 삿포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4-5로 졌고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2-0으로 이겼다. 아시안게임에서는 2-4로 패하는 등 점수가 나지 않아 고전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이번 예선전에서 평소 지론인 공격 야구를 펼칠 계획이어서 득점력을 높일 타순이 어떤 모양새를 보여줄 지 흥미를 끌고 있다.

한편 대만전 선발을 노리는 류제국은 A팀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지만 4이닝 동안 안타 9개를 맞고 4실점으로 무너졌다.

긴장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키우고자 절반씩 섞은 대표팀과 상비군은 22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 아카마 구장에서 A팀과 B팀으로 나눠 9번째 평가전을 치렀고, B팀이 8-2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연아 내일 그랑프리 2개대회 연속 금 도전

‘점프의 정석’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 연속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연아는 24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러시아 모스크바 아이스팰리스 코딩카 빙상장에서 그랑프리 시리즈 5차 대회 ‘러시아컵’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펼친다.

쇼트프로그램을 마친 김연아는 이날 저녁 늦게 프리스케이팅 연기에 나서 그랑프리 3차 대회 우승에 이어 지난 시즌 시니어 무대 데뷔 이후 첫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5세 女궁사 곽예지 최연소 국가대표로

광주체고 이특영도 뽑혀

15살 소녀궁사 곽예지(대전체중)가 사상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올림픽 출전 ‘7부 능선’을 넘었다.

곽예지는 22일 순천시 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내년 베이징올림픽 양궁 대표 3차 선발전 마지막날 리그전에서 1승6패로 부진했지만 1~3차전 종합 순위 5위(48점)에 올라 대표 8명에 포함됐다.

곽예지가 올림픽에 나가려면 내년 상반기 테스트를 거쳐 3명 안에 들어야 한다.

2차전 32강전에서 16위로 턱걸이한 곽예지는 16명이 겨룬 3차전 둘째날(19일) 1위에 오르는 등 선전을 펼친 끝에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금까지 최연소 국가대표는 만 16세 2개월이던 1987년 6월30일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수녕(36)이었다.

1992년 9월생인 곽예지는 만 15세 2개월만에 태극마크를 달며 김수녕의 기록을 1년 단축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달 1차 선발전 첫날 60m 세계타이기록(351점)을 세운 박성현(24·전북도청)이 1위로 선발된 가운데 이특영(18·광주체고), 윤옥희(22·예천군청) 등이 8위 안에 들었지만 2005년 세계선수권 개인·단체전 금메달을 휩쓴 이성진(22·전북도청)은 10위로 탈락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용(30·울산남구청), 임동현(21·한국체대), 이창환(25·두산중공업)이 1, 2, 4위로 여유있게 8강 문턱을 통과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장용호(31·예천군청)와 남자 양궁 대들보 박경모(32·인천 계양구청)도 각각 6, 7위로 태극마크를 달며 아테네 영광 재현을 다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러에 0-3 완패 세계배구 男 월드컵

한국이 세계배구연맹(FIVB) 남자 월드컵에서 강호 러시아에 완패했다.

한국 대표팀은 22일 일본 히로시마 그린아레나에서 열린 2라운드 첫 경기에서 러시아에 세트스코어 0-3으로 져 1승도 올리지 못하고 4연패에 빠졌다.

세계랭킹 19위인 한국은 3위인 러시아를 상대로 전력의 열세를 실감하면서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 역대 상대 전적은 4승24패가 됐다.

한국은 23일 튀니지와 2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승리를 노린다.